

고린도전서: 함께 읽는 성경 공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은 분열된 교회를 어떻게 바꾸나요?

고린도전서는 은사가 풍성하지만 분열된 회중을 다룹니다. 바울은 지도자, 성, 결혼, 음식, 예배, 부활에 관한 논쟁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습니다. 십자가는 지위 추구를 뒤집고, 부활은 몸과 현재의 신실함에 지속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목표는 자기 중요성을 과시하기보다 진리와 거룩함,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편지를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읽기

바울은 에베소에서 한동안 더 머물 계획을 밝히며 편지를 씁니다. 일반적인 연대기에 따르면 서기 50년대 중반입니다. 글로에의 사람들에게 들은 소식과 고린도인들의 질문이 집필 계기의 일부입니다. 편지가 왕복 서신 전체를 보존하지는 않으므로 그들의 구호와 파벌을 재구성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의 직접 저작은 널리 받아들여지며, 16장은 가르침을 여행과 예루살렘 헌금에 연결합니다.

성경 참조: 고전 1:10-17 · 고전 7:1 · 고전 16:5-9

출처: primary, brown

논증 따라가기

각 교정을 그리스도 안의 공동 정체성을 향한 바울의 호소의 일부로 읽으세요. 1-4장은 경쟁에 도전하고, 5-10장은 몸과 관계, 자유를 살피며, 11-14장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다룹니다.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소망의 근거를 둡니다. 사랑은 장식적인 막간이 아니라 은사를 이끄는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역 역할과 특정 은사의 지속적인 실천을 두고 견해가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부르심을 공유합니다.

성경 참조: 고전 1:18-31 · 고전 12:1 - 고전 14:40 · 고전 15:1-58

출처: primary

십자가가 경쟁에 도전합니다

고전 1:1 - 고전 4:21

바울은 존경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세우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며, 그리스도인 사역자는 하나님께 책임지는 종입니다. 세상 지혜에 대한 바울의 비판은 부주의한 사고로 초대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위나 말솜씨를 영적 진리의 척도로 삼는 교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기

교사들을 정체성을 다투는 중심인물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으로 이해할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거룩함과 몸

고전 5:1 - 고전 6:20

바울은 신자들 사이의 심각한 성적 잘못과 소송을 다룹니다. 교회의 권징은 공동체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학대나 외부인을 자기 의로 단속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악행 목록에는 씻음과 은혜에 대한 상기가 함께하며, 사람을 비하해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기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사실은 자유와 몸에 대한 책임을 설명하는 바울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나요?

결혼, 독신, 부르심

고전 7:1-40

바울은 결혼, 성적 책임, 별거, 독신에 관한 질문에 답합니다. 결혼을 열등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독신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에게 상호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는 부분과 특정 상황에 대한 사도적 판단을 구별하세요. 노예제에 대한 권면은 당시 존재하던 강압적 제도를 반영하며, 인간관계의 이상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기

어떤 조언이 특정 상황에 응답하며, 바울의 권면을 이끄는 공통된 관심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

고전 8:1 - 고전 10:33

우상에 대한 지식만으로 함께하는 식탁에서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권리를 제한하고,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를 통해 경고하며, 시장의 음식과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을 구별합니다. 성숙한 자유의 사용은 모든 두려움을 최종 규칙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생각해 보기

바울은 일상적인 식사와 예배 참여를 어떻게 구별하며, 이웃의 양심은 왜 중요한가요?

존중과 주의 만찬

고전 11:1-34

바울은 여성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문제를 다룬 뒤, 부의 차이로 교회가 분열되는 식사를 직면하게 합니다. 머리 가리개의 세부 사항은 논쟁적이지만, 그의 설명에는 주 안에서의 상호 의존이 포함됩니다. 만찬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은 함께 모인 몸을 인정하고 돌보는 일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기

사회적 특권과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는 주의 만찬이 선포하는 내용과 어떻게 모순되나요?

한 몸, 다양한 은사, 하나의 목적

고전 12:1 - 고전 14:40

성령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주시며, 사랑은 그 사용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과 질서 있는 참여가 영적인 과시보다 중요합니다. 14:34-35의 여성에 관한 지침을 11:5와 함께 읽으세요. 적용 범위와 방식에 관해 그리스도인들의 견해는 다릅니다. 그 논의를 인정하면서 교회를 세우라는 분명한 부르심을 따르세요.

생각해 보기

어떤 실천이 말하는 사람을 과시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해와 참여를 더 쉽게 하나요?

부활은 신실한 수고를 의미 있게 합니다

고전 15:1 - 고전 16:24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나타나심에 관해 전해 받은 선포를 회고한 뒤, 신자들의 미래 부활을 논증합니다. 신령한 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몸이며 몸을 지닌 삶의 부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헌금과 여행 지침은 미래의 소망을 일상의 신실함에 연결합니다.

생각해 보기

바울은 왜 부활 논증을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현재의 수고에 대한 격려로 마치나요?

출처

- [primary] 1 Corinthians; primary biblical text. Reading references only; no Bible text is reproduced in this resource. <https://ebible.org/eng-web/1CO.htm>
- [brown] Raymond E. Brown, An Introduction to the New Testament (Doubleday, 1997), chapter 22. Background and scholarly discussion; not an endorsement of every interpretation in this study.

자체 제작한 자료의 글과 이미지: CC BY 4.0. 성경 본문과 제삼자 자료는 제외됩니다.

Pauline Letters · CC BY 4.0 · <https://paulineletters.com/ko/explore/resources/study-1-corinthians>